



INDIA NEWS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것ियो.
찾으라 ~ 문을 두드리라.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장7절)

10월의 저희가 있는 이곳 인도는 힌두교 축제가 너무 많아서 곳곳에서 시끄러운 스피커 소리 와 함께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우기철이 길어 저서 비기 많이와서 저희 사역지에 있는 성도들의 집들과 교회 건물 에도 비 피해를 입었고 저희 사역자가 하는 에어컨 기술센타도 올해에는 두 번이나 물에 침수되고 또한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안타 까운 상황들이 일어 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저희 사역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 세미나

한달에 한번 열리는 교사 세미나에 지난달 부터 교사 세미나를 (남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과 (북쪽)에 위치한 사역자들을 나눠서 지역이 가까운 곳에서 곳에서 세미나를 할수 있도록 두곳 에 장소에서 각기 다른 날짜에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역자들이 설교 시범자로 세울수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교사들을 통해 찬양과 복습 게임 등 다양한 아이디어 를 주고 받으면서 사역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 하면서



사역자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도회

감사한 것은 한달 에 두 세 번 철야 기도회와 가정교 회마다 돌아 가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지 저희의 상황들은 얼마전에 저희 사역지 에서 한 시간 거리에 떨어진 장소에서 현지인들이 하는 가정교회가 힌두교 인 들 에게 공격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 하면서 이제는 교회들이 뭉쳐야 하고 인도 교단 에 도 가입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때에 서로 상황들을 빨리 공유 하면서 사건 사후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가까운 가정교회와 그리고 큰 교회 목회자 들과 인도 교회 리더들에게 비상 연락 망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핍박 속에 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어떤 핍박이 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기도회

하우라 교회

하우라 교회에서 그 동안 교회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작아서 고민 중에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수 있는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는 아이들 에게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믿지 않는 부모들 에게 아이들 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 주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쇼미란 과 디피카 목사님 부부는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닐몰고시 목사 또한 가정 교회를 다니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사업장을 방문 하면서 성도들의 안전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닐몰 고시 현장 방문 사역



쇼미란 목사님 부부의 주일학교 사역

간증

제가 리더 들의 철야 기도회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체험 하고 직접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간증 하는 가운데 가족 들의 구원에 대해서 간증 했습니다. 그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 했던 간증을 하는가운데
응답이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 했던 내용들을 간증 하는 가운데 한 인도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동안 듣고 싶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고백하면서 힘껏 외쳤습니다.
참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제목

1. 새롭게 편성된 교사 세미나 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하우라 교회 사역과 닐몰 고시 목사님 의 교회 사역 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각 가정교회와 교회마다 연합하여 기도 하는 모임 가운데 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각 교회마다 핏박 속에서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저희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도 콜카타 정희중. 전문희 드립니다.